

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설립 가시화

복합에너지 생산연구단지(Complex Park) 사업의 일환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8월12일 오전 11시40분 3층 상황실에서 에너지산업 연구·개발 보급·확대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울산시 등 3개 기관은 협약서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센터 설치, 미래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과 보급촉진, 인력양성 및 교류, 연구시설, 기자재 등 공동 활용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울산지역 현장 애로기술 해결방안 모색과 기술자문, 정보교환과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추진, 기타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과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기로 했다.

특히,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전국 유일의 에너지 학부를 가진 에너지 특성화대학으로 유능한 교수진을 비롯한 우수인력의 공동연구 활동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응용기술이 접목되면 최고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정부 공약사항인 복합에너지 생산 연구단지는 울산에 미래형 에너지 연구개발, 생산, 교육기능이 집적된 복합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에너지 전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화학저널 2008/08/12>